



재활용의 선두주자 「부산시 동래구청」



필름류 재활용을위한 분리배출 활성화

동래는 삼한시대(三韓時代) 변진독로국(弁辰瀆盧國)의 유지(遺址)이며 한때 거칠산국(居漆山國)의 치소로서 신라에 병합되면서 거칠산군으로 되었다가 신라 경덕왕16년(757) 지방행정제도를 개편 할 때 동래군(東萊郡)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래(東萊)라 함은 동쪽의 내산(萊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蓬萊山)의 약칭으로 풀이되고 있다.

동래구는 전통의 문화권, 관광 위락권, 스포츠문화권 등 3개의 권역별로 형성되어 있으며, 21세기를 이끌어갈 부산시의 중심도시이다.

편리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 촉진,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실천과 지역경제회복, 동래의 전통 문화 복원과 관광기반 육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도시조성, 신뢰와 감동의 자치 행정실천이며 이러한 역점 시책을 통해 과거와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 위락·쇼핑·교육의 중심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정주공간의 3대 비전이 바로 활기찬 중심도시로 만들려는 것이 동래구의 구정방향이다.

활발한 도시개발과 선진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활발한 주택 재개발 지원 및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순환 교통망인 지하철 3호선 2단계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보강과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Green Zone(보행자 보호구역) 지정운영,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특히 함께 잘사는 건강한 지역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 노인 복지를 위해 지난 3월 지상4층의 노인요양시설 완공하여 경증치매·중풍·노인성질환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완공하였으며, 앞으로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조성을 위해 성금모금과 복지 후원업체의 지속적인 발굴, 토요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동전개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시와 자연이 상생하는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보전 및 환경의식 고취, 대기환경보전, 수질환경보전, 소음·진동·토양오염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가로 및 뒷골목 청소, 생활쓰레기 완벽처리, 이삿집 쓰레기 Any Time 수거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생활속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단독주택 대상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대여(2006년 3월부터)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를 시행(10% 감량시 당월 쓰레기 수거수수료 5% 경감) 하고 있으며, 필름류 분리수거함 배부, 수집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과 민간 수거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폐자원 집중수거 운동 전개를 통해 필름류포장재 83톤/년, 폐형광등 176,220개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편, 이러한 직접적인 지원과 더불어 주민의 재활용 실천의식 고취를 위하여 학교나 대형업소,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순회교육, 환경체험교실 운영, 재활용 한마당 축제, 정기적인 분리실태 점검과 홍보책자 배포 등 다양한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해 나감으로서 쓰레기 감소와 자원절약을 모든 주민이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